

『조선예술』 1992년 북한연극 읽기 - 연극/가극계의 침묵, 인형극계의 활발한 활동 -

연극계는 92년 4월에 장막극 <승리의 기치따라>를 올리겠다고 계획하며, 가극계는 1991년부터 진행해오던 가극 <백양나무>를 무대화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 두 작품은 92년까지 완성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인형극계가 연초에 계획한 <돌먹은 꿀꿀이>는 9월에 공연되었다.

연극/가극 혁명의 회고

1월, 2월, 5월, 6월, 11월, 12월에 연극/가극 혁명의 날을 회고하는 글들이 실려 있다. 연극계와 가극계가 여건상 새로운 작품을 내놓지 못함에 따라 혁명의 회고에 지면을 할애한 것으로 짐작된다. 1972년 <꽃파는 처녀>와 <밀림아 이야기하라>, 1978년 <성황당>, 1984년 <혈분만국회꽃파는 처녀>에 대한 김정일의 지도가 서술되어 있다. 김정일은 장면을 고치고, 직접 자신이 장면을 만들면서 인물의 형상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도했다. 이를 통해 김정일이 대조와 음영에 대한 감각이 있음을 읽어낼 수 있다.

장작의 원리 검토

5월, 11월, 12월 연단에는 연극/가극 창작의 원리가 다루어진다. 이중 5월과 12월의 연단은 무대에 관한 것으로, 조명과 무대미술의 조형성에 대한 창작법이 있다. 조명에서의 핵심은 무대를 밝고 선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인민들이 예로부터 밝고 선명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미래에 대한 낙관적 신념을 유지하고픈 무의식의 반영일 수도 있다. 무대미술 역시 이 같은 맥락이 발견된다. 무대에 재현되는 형태 역시 예술적으로 선명하고 간결하게 그럴 것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특집 인형극: 인형극의 제작과정

9월에 인형극 특집이 실려 있는데, 이를 통해서 북한 인형극 제작과정을 알 수 있다. 배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여전히 현실체험이다. 그들은 동물원에 가서 토끼의 특성에 대해 연구하며 인형제작자와의 토론 끝에 귀를 움직이도록 인형을 제작하였음에 자부심을 갖는다. 또한 인형이 먹는 장면을 해결하기 위해 단원들은 실패를 거듭하다가 접착천을 이용하여 인형이 먹는 장면을 만들었음에 자부심을 갖는다. 인형극 극단 내에서 협조과정의 탄탄한 듯하다. 이외 《돌먹은 꿀꿀이》의 무대미술을 흐름식립체무대미술과 조선식으로 만든 과정을 밝힌다. 이것은 김정일의 가르침을 따른 것이며, 실제와 같은 느낌을 받고 싶어 하는 어린이들의 심리를 반영한 것이다.

김정수